



시즌 3승, 승률 100%. 박성현의 무적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현이 24일 경남 김해의 가야골프장에서 끝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갖췄다. 동료들이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우승의 순간을 즐기고 있는 박성현(왼쪽). 사진제공 | KLPGA

3전3승 승률 100%...박성현 '독주시대'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18번을 연장 위기 파 퍼트로 우승 확정 더 강해진 멘탈...KLPGA 1인자 우뚝 3억8952만5000원, 상금랭킹 독주도

박성현(23)의 무적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개 대회에서 3승을 쓸어 담으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확실한 1인자로 우뚝 섰다.

박성현은 24일 경남 김해의 가야골프장 신어·낙동코스(파72·6856야드)에서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5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4개를 적어내며 이븐파 72타를 쳐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했다. 김민선(21)과 조정민(22)은 1타 뒤진 공동 2위(7언더파 209타)에 올랐다.

삼천리 투계터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이자 시즌 3승째다. 우승확률은 100%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현 대차 중국여자오픈을 시작으로 삼천리 투계터오픈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이번 시즌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박성현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첫날 타수를 줄이지 못한 박성현은 공동 27위로 출발했다.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탔다. 하루에만 8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선두로 나섰다. 왜 박성현이 대세인지 보여주는 경기였다.

멘탈까지 강해졌다. 1타 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박성현은 6번홀(파3)에서 보기를 하면서 주춤했다. 순식간에 공동선두가 됐고, 혼전이 펼쳐졌다. 위기의 순간 박성현의 특기가 효과를 발휘했다. 장타를 앞세운 박성현은 9번(파5·561야드) 홀에서 기적 같은 샷 이글을 성공시켰다. 티샷으로

260야드를 보낸 뒤, 3번 우드로 230야드 가까이 날랐다. 그리고 홀까지 76야드를 남겨두고 친 세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샷이글을 만들어냈다. 2타 차로 달아나면서 우승이 쉽게 찾아올 것 같았다. 그러나 위기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17번홀(파3)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공이 워터해저드에 빠졌다. 다행히 보기로 막아내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1타 차 선두로 맞은 18번홀(파4). 박성현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했다. 티샷에 이어 아이언샷 그리고 퍼트까지 실수가 계속됐다. 1타 차 공동 2위였던 김민선(21)이 먼저 파로 마무리하면서 승부의 추는 박성현에게 돌아갔다. 파 퍼트를 성공하면 우승, 실패하면 연장이다. 긴장된 순간 박성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파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1년 전, 롯데안타여자오픈에서 마지막 짧은 퍼트를 놓치며 우승을 놓쳤던 박성현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박성현은 자신을 믿었다. 경기 뒤 박성현은 "안 들어가면 연장에 가지는 생각으로 쳤더니 긴장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덕에 편안한 스트로크가 나온 것 같다. 17번홀에서도 티샷이 해저드로 빠졌지만 충분히 보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박성현을 막을 상대는 없어 보인다. 추격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이날의 승부는 박성현과 박성현의 싸움 같았다. 추격자들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박성현이 실수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시즌 3승째를 달성한 박성현은 상금랭킹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다. 우승상금 1억원을 추가한 박성현은 시즌 상금 3억8952만5000원으로 2위 조정민(2억 161만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박성현은 "시즌 5승이 목표였다. 벌써 3승을 거뒀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며 자만하지 않았다.

주영로 기자 nai1872@donga.com

프로미오픈 우승 최진호 "올 목표는 3번이나 쓴맛 본 PGA 도전"

11개월만에 통산 5번째 우승 "선수생명 끝날때까지 美 도전"

"선수 생명 끝날 때까지 도전할 것." 최진호(33)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016시즌 개막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총상금 5억원) 정상에 올랐다.

최진호는 24일 경기도 포천의 대우몽베르 골프장 에메·브랭명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더블 보기와 보기 1개씩을 기록했지만 버디 4개를 뽑아내면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최진호는 이창우(23·14언더파 274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5월 SK텔레콤오픈 이후 11개월 만에 거둔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6타 차 선두로 나서며



최진호가 24일 경기도 포천 대우몽베르 골프장에서 열린 2016시즌 KPGA 투어 개막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정상에 올랐다.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는 최진호. 사진제공 | KPGA

우승을 예약한 최진호는 이날 오전 3라운드 잔여경기 3홀을 치른 뒤 최종라운드 18홀까지 모두 21홀을 경기했다. 체

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침착하고 안정된 경기운영이 돋보였다.

4라운드 시작과 함께 김태훈(31)과 이창우의 추격이 거셌다. 그러나 최진호도 곧 반격했다. 전반 9개 홀에서 2타를 줄이면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에는 보기와 더블보기가 1개씩 나왔지만, 버디도 2개 잡아내면서 끝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개막전 우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최진호는 남은 시즌 상금왕, 다승과 PGA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로 했다. 최진호는 "상금랭킹은 2위, 대상은 3위가 최고 성적이다. 2006년 신인상, 2010년 재기상을 뒀지만 아직까지 상금왕에 오를 적이 없다. 또 다승도 해보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보너스 상금과 승용차까지 주는 제네시스 대상까지 타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험난한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

했다. 3번이나 쓴맛 본 미 PGA 투어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도전하면서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돌아온다. 2008년 웹닷컴투어 월요일예선을 뛰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적도 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많이 배웠고 실력은 그만큼 좋아졌다. 물론 배우려고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며 도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개막전부터 불꽃이 튀었다. 지난해 11월 2015년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5개월 만에 필드를 밝은 남자골퍼들은 특유의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버디쇼를 펼쳤다. 4라운드 동안 150명(3라운드부터는 64명)이 기록한 버디(이글 포함)는 무려 1392개가 쏟아졌다. 언더파로 경기를 끝낸 선수만 51명이다.

주영로 기자

아, 통한의 더블보기...안선주, 후지산케이클래식 아쉽게 준우승

안선주(29)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후지산케이클래식(총상금 8000만엔)에서 마지막 홀 통한의 더블보기로 우승을 놓쳤다. 안선주는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가와나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

를 쳤지만 함께 11언더파 205타로 오야마 시호(일본)에 1타 뒤져 공동 2위에 만족했다.

17번홀까지 1타 차 선두를 달려 우승을 눈앞에 뒀던 안선주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불운을 만났다. 더블보기를 하

면서 한꺼번에 2타를 잃었다. 앞서 경기를 끝낸 오야마 시호는 그 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덕분에 극적인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28)는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와타나베 아카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자리했고, 배희경(24)은 공동 7위(7언

더파 209타)로 경기를 끝냈다. 상금랭킹 1위 신지예(28·2953만엔)와 김하늘(28)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파나소닉오픈에서 김경태(30)가 아쉽게 준우승했다. 개막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 김경태는 합계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해 이케다 유타에 3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SK 만난 방성훈, 복귀 잘 될까?

임의탈퇴신분...SK와 3년계약 남아 '김선형 중심 팀 분위기 조화'가 관건

방성훈(34)이 SK 관계자들을 만나 농구계 복귀를 타진했다. 18일 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위치한 SK체육관을 찾아가 문경은(45)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복귀의사를 전했다.

방성훈은 2011년 은퇴 후 프로농구 코트에선 모습을 감췄으나, 지인들과 꾸준히 동호인 농구를 해왔다. 최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훈련하는 모습이 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농구계에선 방성훈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방성훈은 현역시절 이창희-문경은의 뒤를 잇는 대형 슈터로 기대를 샀다. 연세대 재학 중이던 2002년 부산아시아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미국프로농구(NBA) 진출을 목표로 NBA 하부리그인 D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5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KTF(현 kt)에 선발된 그는 2005~2006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SK에 입단했고, 6시즌 동안 165경기에 출전해 평균 17.5점·4.2리바운드·2.5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간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매 시즌 반복된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2010~2011시즌 종료 후 은퇴했다.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방성훈에 대한 권리는 원 소속팀 SK가 갖고 있다. 방성훈의 은퇴 당시 SK는 그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입의 탈퇴 신분으로 등록했다. 그는 SK로 복귀해야 하며, 이적을 원할 경우에도 SK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SK와 방성훈 사이에는 3년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방성훈이 18일 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위치한 SK체육관을 찾아가 복귀의사를 전했다. SK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성훈은 2011년 29세의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정상급 슈터로 이름을 날렸다. 스포츠동아DB

SK는 방성훈의 복귀를 받기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고의 재능과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지만, 가드 김선형(28)을 중심으로 새 팀을 짠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24일 "방성훈이 구단 체육관을 찾아와 복귀 의사를 전했다.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계적 훈련을 한다면 (2016~2017시즌을 지나) 2017~2018시즌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 의지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방성훈 복귀 도운 김승현 "재능 아까웠다"

"복귀 위해 꾸준한 운동 15kg 감량 경기감각 보강하면 2~3시즌 충분"

방성훈(34)이 농구계 복귀를 결심하게 된 데는 그의 못다 핀 재능을 아쉽게 생각한 주변 지인들의 권유도 크게 한 몫했다. 지인들은 3년 전에도 복귀를 권했지만, 당시 방성훈은 "경기 출전은 둘째치고 재활만 하다가 다시 은퇴할 것 같다"며 회의적 태도를 취했다.

선수시절 '매직핸드'로 불리며 프로농구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활약했던 김승현(38·은퇴·사진)은 방성훈의 이른 은퇴를 아쉬워한 지인 중 한명이다. 2002부산아시아안 게임 때 멤버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는 방성훈과 친분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다. 2014년 은퇴한 김승현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P&B와 장충체육관 보조경기장 '더 코트(The Court)'에서 농구 스킬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다.

김승현은 "(방)성훈이가 너무 일찍 은퇴했다. 그 재능을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발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성훈이는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땀가를 하려는 성향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방성훈은 2011년 은퇴 후 2개 구단으로부터 복귀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김승현의 말대로



스스로 복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조금씩 운동을 해왔던 방성훈은 올 3월부터 김승현이 있는 GP&B에서 본격적으로 복귀를 염두에 둔 운동을 해왔다. 김승현은 "일주일 4~5번씩 체육관에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체중을 15kg 정도 감량했다더라. 이제는 본인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다. 그만큼 열성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귀에 대한 마음이 강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방성훈이) 3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경기감각과 체력만 보강한다면 2~3시즌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능력이 있는 선수다. 많은 분들이 성훈이의 복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성훈이의 복귀는 프로농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배의 복귀를 응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내달 10일 롯데안타타 오옌 예선전

롯데안타타 여자오픈의 출전권을 놓고 펼쳐지는 웰리파인스쿨(예선전)이 5월 10일 충남 부여의 롯데스카이힐 부어C에서 개최된다. 신인 선수 발굴과 오픈 대회의 의미를 살려 치르는 예선전은 프로 75명과 아마추어 21명이 출전해 상위 19명(프로 16명·아마추어 3명)에게 정규투어 출전의 기회를 준다. 정규대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KLPGT 홈페이지, 아마추어는 리얼엔스스포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28일까지이다.

포틀랜드, LA 클리퍼스 잡고 첫 승

미국프로농구(NBA) 포틀랜드가 24일(한국시간) 모다 센터에서 열린 2015~2016시즌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1회전(7전4승제) 3차전 홈경기에서 데미안 릴라드의 맹공을 앞세워 LA 클리퍼스를 96-88로 꺾고 2연패 후 첫 승을 거뒀다. 1·2차전에서 부진했던 릴라드는 양 팀 통틀어 최다인 32점을 올렸고, CJ 맥컬럼도 27점으로 힘을 보탤었다. 같은 콘퍼런스의 오클라호마시티는 밀라스에 119-108로 이겨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2차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동부 콘퍼런스의 인디애나는 토론토를 100-83으로 제압하고 2승2패로 동률을 이뤘다.